8강 루쉰의 소설을 통해 본 삶과 죽음의 문제

(1교시)

■ 루쉰 소설의 죽음, 저항, 기갈

※ 학습목표
루쉰의 저항의식과 기갈로서의 문학을 이해한다.

▲ 희생자, 『복을 비는 제사』의 샹린댁
관습 혹은 오래된 일상적 믿음이 한 개인의 불행에 개입하는 사태가 이 소설에서는 '제례'를 둘러싼 에피소드 속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재혼을 하고,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인은 부정한 존재이다. 부정한 존재는 노동의 권리조차도 박탈당한다. 때문에 샹린댁의 불행은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불행이 집단의 금기와 만나 그 개인이 부정한 존재로 배제되었을 때, 불행은 완성된다. 샹린댁은 부정한 존재로 '제례'로부터 배제되었고, '정상으로 돌아올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다'는 집단의 진단 속에서 죽어갔다. 하지만 샹린댁의 죽음은 외부적인 폭력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완전히 자각하지 못한 존재, 스스로의 자유를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 여전히 '오래된 풍습의 세계'에 결박당해 있는 존재인 자신에게도 책임은 없지 않다. 한 개인의 불행한 운명은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 자각이 결핍되었던 샹린댁과 천스청
샹린댁은 도망쳐 나왔지만, 도망이 완벽해지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야 하며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샹린댁의 경우 삶의 돌파구를 찾아 도망을 치긴 했지만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주체의식은 여전히 결핍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막상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 자유를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불행으로 치솟게 된다. 천스청 역시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은 단지 착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는 루쉰의 '저항'
다케우치 요시미(일본의 유명한 중국문학 전공자)가 루쉰에게서 발견한 '저항'은 정치적인 것을 넘어선다. 또한 저항 자체가 루쉰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면 억압에 대한 저항이나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직접성에 육박하는 '실재'인 것이지, 개념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루쉰의 '저항'은 계급과 역사와 정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 삶의 기저를 관류하는 '태도'와도 같다. 그런 삶은 남루하고, 지겹고, 어찌할 수 없이 슬픈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 루쉰의 '문학'은 그러한 운명에 부여한 하나의 형식이다.

▲ 『죽음을 슬퍼하며』에는 중층적 해석의 코드
『죽음을 슬퍼하며』에는 실패한 연애에 관한 회상을 외양에 깔고 있지만, 그 속에는 계몽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과 대결하는 지식인의 고투 그리고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이식'의 테마가 도사리고 있으며, 삶의 비루함을 추적하고 드러내는 잔인한 서사의 기술이 숨어 있다. 연애도 계몽도 지식도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그 어떤 것도 '기갈'이 아닌 것은 없다. 그러므로 문학은 가혹하게 그 기갈의 현장을 드러내야만 하고, 그런 한에서 문학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며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루쉰의 잔인함은 이러한 태도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 참고자료

다케우치 요시미의『루쉰』(문학과 지성사, 2003)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8강 루쉰의 소설을 통해 본 삶과 죽음의 문제

(2교시)

■ 『죽음을 슬퍼하며』에 드러난 삶

※ 학습목표
『죽음을 슬퍼하며』를 통해 생활인의 삶과 삶의 망각에 대해 이해한다.

▲ 자기기만을 고백한다는 것
루쉰은 '쥐엔성'의 입을 빌어 "만일 가능하다면 나는 자신의 회한과 비애를 쓰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걸 안다. 정서와 욕망은 그것이 일단 문자화 되는 순간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회한과 비애'의 '고백'은 동정이나 양심, 혹은 속죄와 위안의 영역이 아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기만'을 드러내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쓴다'라는 행위는 '쓰고 싶다'는 욕망을 기만하는 것, 알면서도 속아주는 자기최면에 가깝다. 쥐엔성은 알고 있다. 죽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죽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그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용서를 구하고 위로할 길이 없는 한 그 역시 행복해질 수 없다. '망각'을 통과하지 않고, '거짓'의 지팡이를 잡지 않은 '새로운 생명의 길'은 쥐엔성에게는 없다.

▲ 루쉰에게 '생활'이란 무엇인가.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감각과는 다른,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생활. 그것을 위해 『고독한 사람』의 리엔수는 변절하고, 『죽음을 슬퍼하며』의 쥐엔성은 맹목적인 사랑에서 오는 행복을 잃어버린다. *"난 반 년 동안 오직 사랑을 위하여 그 밖의 인생의 의의를 모두 소홀히 했음을 깨달았다. 첫째는 생활이다. 사람은 반드시 생활을 해야만 사랑도 비로소 따르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반드시 분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활로를 열어주는 일은 없다....."*

▲ 루쉰의 선택
만약 자신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보자. 하나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면벽수행을 통해 어느 순간 도를 깨우쳐서 전 인류를 구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얼어 죽을 지경의 사람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단 하나의 외투를 벗어주는 방식이다. 루쉰은 당당하게 첫 번째 방식을 택한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외투를 벗어주며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겠지만, 루쉰이 보기에 이것은 대책이 없는 행동이며 이어질 자신의 동사는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루쉰에게 생활의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유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절실하고 솔직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망각과 거짓말의 삶

『죽음을 슬퍼하며』에서 사랑하던 사람은 죽었고,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상과 지식과 사랑 혹은 미래에 거는 거대한 희망을 '망각'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때문에 쥐엔성은 말한다. *"새로운 삶의 길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 나는 들어가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아직 어떻게 해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지를 모른다."*새로운 삶의 길을 위해서 쥐엔성이 할 수 일이란 자신의 회한과 비애를 적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쯔쥔을 장송하고 망각하는 것뿐이다. *"나는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만 한다. 나는 마음의 상처 속 깊숙이 진실을 감추고 묵묵히 전진해야 한다. 망각과 거짓말을 길잡이로 삼고서."*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